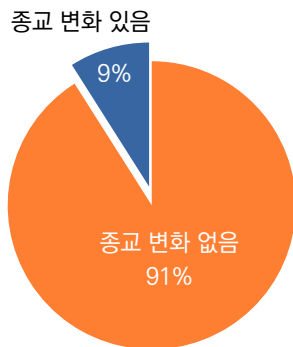




1년 전 개신교인 중 ‘개신교 이탈자’ 13%!

- ▶ 최근 1년간 믿는 종교에 변화 여부를 보면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9%로,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국민들 사이에 종교변동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‘종교 변화가 있다’ 응답자의 종교 변화를 살펴보면 1년 전 개신교(12%), 불교(9%), 천주교(8%)를 믿었던 사람 중 ‘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’로 바뀐 비율, 즉 무종교인이 된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이었고, 1년 전 개신교 신자였던 사람 중에서 개신교를 이탈한 경우는 13%로 나타났다.

[그림]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여부 (%)**



[그림]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(주요 종교, %)

1년 전 종교	현재 무종교로 변화	현재 타종교로 변화	종교 변화 없음
개신교	12	1	87
불교	9	1	90
천주교	8	1	9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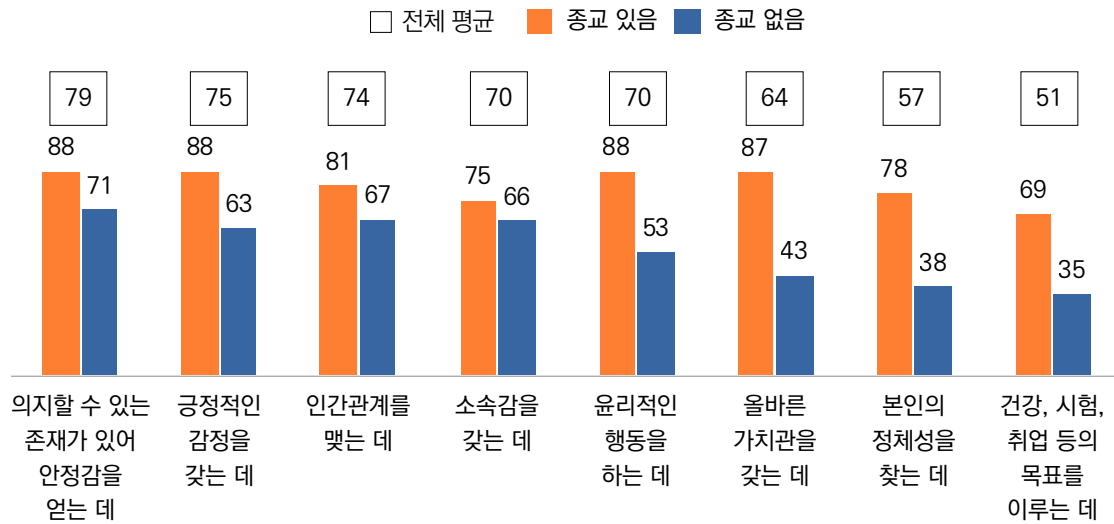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2022년 종교인식조사: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, 2022.12.14. 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2.11.25.~11.28)

**종교 변화 없음(1년 전과 동일한 종교+1년 전, 지금 모두 종교 없음), 종교 변화 있음(1년 전 믿는 종교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+1년 전 믿는 종교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+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 다름)

◎ 무종교인, ‘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종교가 안정감 얻는 데 도움된다’ 71%

- ▶ 종교를 믿는 것은 어떤 효능감 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? 종교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도움에 대해 물은 결과,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(79%),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(75%), 인간관계를 맺는 데(74%)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%를 상회했다.
- ▶ 주목할 점은 무종교인의 경우 ‘안정감’(71%), ‘인간관계’(67%), ‘소속감’(66%) 측면에서는 3명 중 2명 이상이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이다.

[그림] 종교의 효능감 (종교 유무별, ‘도움 된다(매우+도움 되는 편)’ 응답률, 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2022년 종교인식조사: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, 2022.12.07. 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2.11.25.~11.28)